

'97 세계전자부품시장 현황과 전망

조 사 부

I. 일본의 전자부품 시장동향

일본의 '97년도 전자부품생산액은 전년도 예상액보다 2.3% 증가한 3조 3,738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장기화한 세트의 재고조정과 부품이 해외생산이전에 따라, '96년의 일본국내 생산액은 전년실적을 2.2% 남짓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년에는 계속되는 해외생산과 수입의 확대 나아가서는 저코스트화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있어서의 기기생산 신장을 배경으로 고부가 가치화에 의해 국내생산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각사에서는 특히 이동체통신, PC관련, 디지털 AV등의 성장분야에 대응을 강화하고, 고주파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경박단소의 기술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또 인터넷을 매개로한 “홈페이지와” “CD-ROM 카타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판매수입을 도입하여 시장

개척을 전개하고 있다.

1. 품목별 동향

(1) 수동부품

'97년에 있어서의 수동부품의 국내생산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5년에는 1조 1,786억 1,800만엔에 달하였으나, 세트의 재고조정과 시장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96년에는 1조 1천억엔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97년에는 세계적으로 재고조정이 끝나고 수요가 상향한다고 하는 관측도 있으나, 해외생산이전이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생산은 '96년의 생산전망액을 조금 밑돌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97년에 있어서의 국내시장은 소비세율의 인상에 의해 대형전자기기의 단말소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보는 부품메이커가 적지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동체통신과 PC관련을 축으로한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서의 수요증가에 기대하고 있다.

가정용기기도 DVD를 비롯한 디지털기기가 해외에 이전하는 일반 AV기기의 부족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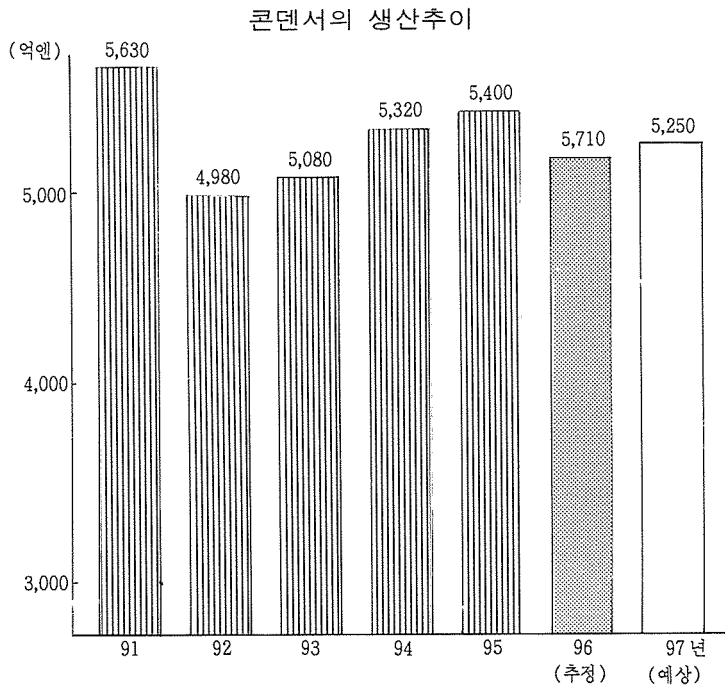
① 콘텐서

콘텐서는 다른 회로부품에 비해 국내생산은 신장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요소란 바로 칩콘텐서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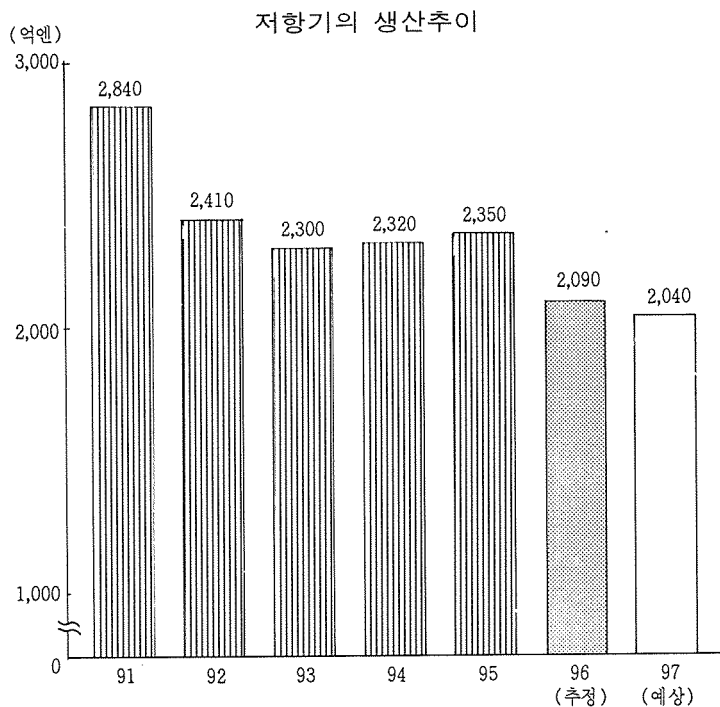
통신통계에 의하면, 콘텐서의 국내생산액은 '95년에 5,400억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생산이전과 가격하락 등의 요인도 있어 '96년에는 대체적으로 5,170억엔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7년에는 '96년에 비해 미증이 예상되는데, 가변콘텐서는 이동체통신용의 주파수 조정용도인 칩타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고정콘텐서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칩콘텐서의 생산이 신장될 전망이다.

알루미늄 전해 콘텐서는 범용타입의 해외생산 정착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칩타입과 고신뢰성의 대형품에 더욱 대응이 강화되고 있



(자료 : 통산성 통계)



(자료 : 통산성 통계)

으며, 세라믹콘덴서는 칩타입과 안전규격취득품의 국내생산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탄탈콘덴서는 칩타입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필름콘덴서는 칩타입이 서서히 증가하는 한편 메타라이즈드의 안전규격취득품을 포함한 전원용콘덴서의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② 저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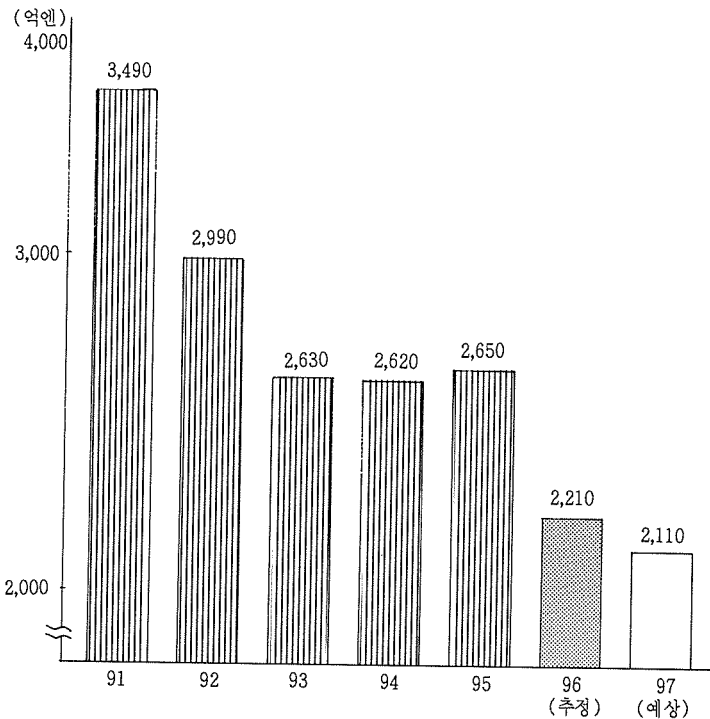
일본의 저항기 생산은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생산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요인으로, '97년에도 일본 생산액은 '96년 전만액을 하회하는 2,040억엔 남짓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장가격의 하락도 있어 생산규모를 확대해 오던 칩저항기도 담보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신에 네트워크 저항기가 SMD타입의 시장을 확대하면서 생산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산화금속피막, 권선이라고 하는 파워회로용은 지속적인 수요에 의해 받쳐지고 있으며 카본 피막저항기의 생산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금속피막저항기는 고정도화 Needs가 강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변저항기는 AV기기의 해외생산에 따라 생산의 주체가 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어 국내생산은 여전히 불투명한 면이 있다.

③ 변성기

코일과 트랜스는 이미 아시아가

변성기의 생산추이



(자료 : 통산성 통계)

세계의 공급기지로써 성장하고 있어 국내생산의 어려움은 '97년도에 계속될 것이다.

통산통계에 의하면, '95년도 변성기의 생산액은 2,650억엔이었으나, '96년에는 2,200억엔 남짓으로 후퇴하였으며, '97년에는 더욱 생산액이 다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ASEAN과 중국이 코일과 트랜스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가정용뿐만 아니라, 스위칭 전원과 권선 타입도 국내생산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편향요크와 후라

이 백 트랜스의 CRT디스플레이(칼라TV 포함)용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한편 고정세도 CRT디스플레이용의 평향요크, SMT를 채용한 초소형 스위칭전원 및 카드용 등의 SMD트랜스는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④ 수정 디바이스

수정디바이스는 '94년도에 2천억엔대에 올라섰으나, 그 후에는 담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다시 2천억엔대에 올라서 얼마만큼 상승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수정디바이스공업회(QI-AJ, 윤승신 - 회장)가 발표한 생산통계에 의하면, '95년도는 1,730억엔의 실적으로 휴대전화, PHS라고 하는 이동체 통신용의 고정도수정진동자와 TCXO(온도보상수정발진기) 등의 시장 규모가 확대 하였다.

가정용 수정진동자는 아시아에의 생산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PC관련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패키지 스타일에서는 SMD(표면실장디바이스) 타입이 순조롭게 생산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시장확대에 따라 생산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각사에서는 국내에 있어서 이동체 통신용을 비롯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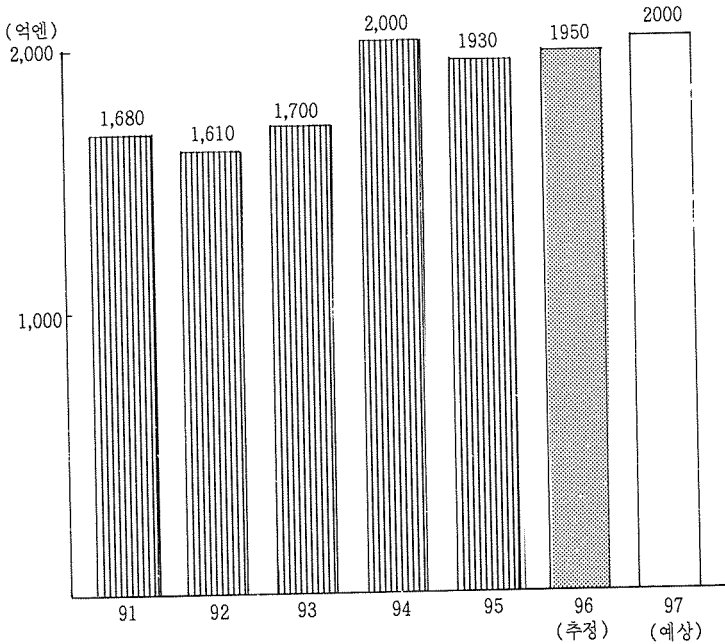
한편, 주요각사는 AV기기, 가정용의 수정진동자, 크로크수정발진기, 저배형 수정진동자, SMD형 수정디바이스 등을 아시아에서 현지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⑤ 프린트 배선판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프린트배선판의 생산액은 4~8등급을 중심으로 다층판 주도의 신장이 예상된다.

일본 프린트회로공업회(JPCA, 연승우회장)가 발표한 프린트 배선판의 생산통계에 의하면, 95년

수정진동자와 응용제품의 생산추이



(자료 : QIA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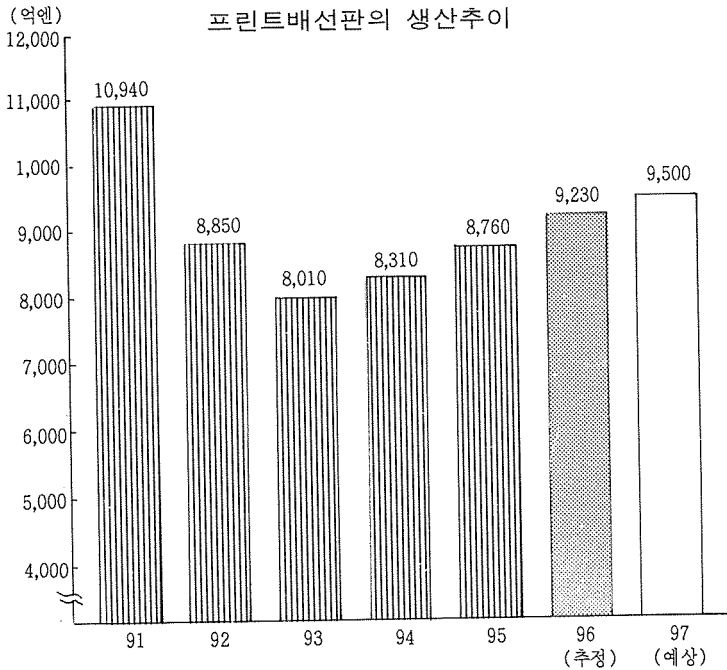
도에는 8,760억엔, '96년도에는 9,230억엔으로 나타나 있다. 평면판, 양면판의 시장은 후퇴하고 있으며, 10층이상의 초고 다층판도 컴퓨터의 다운사이징화에 의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생산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것은 4~8층급의 다층판으로 '97년도에도 생산신장이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다층판은 저가격화 Needs의 대응이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사에서는 빌드업공법 등 신기술을 사용한 공급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당면한 4~8층급에 있어서의 시장경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면판, 양면판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의 생산을 가속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증산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프린트배선판의 생산추이



(자료 : 통산성통계)

(2) IC·표시소자

'96년의 전자다바이스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4% 감소한 6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체통신기와 PC, 주변기 기용 반도체수요는 견조히 추이하고 있지만, 16M비트 드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가격의 급락이 생산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모리 가격의 추이는 '96년말의 크리스마스 상품전에 있어서의 PC의 최종적인 판매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안정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97년에는 후반부터 메모리의 증산효과가 생산액의 플

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디바이스의 국내생산은 6% 증가한 6조 3,600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반도체 집적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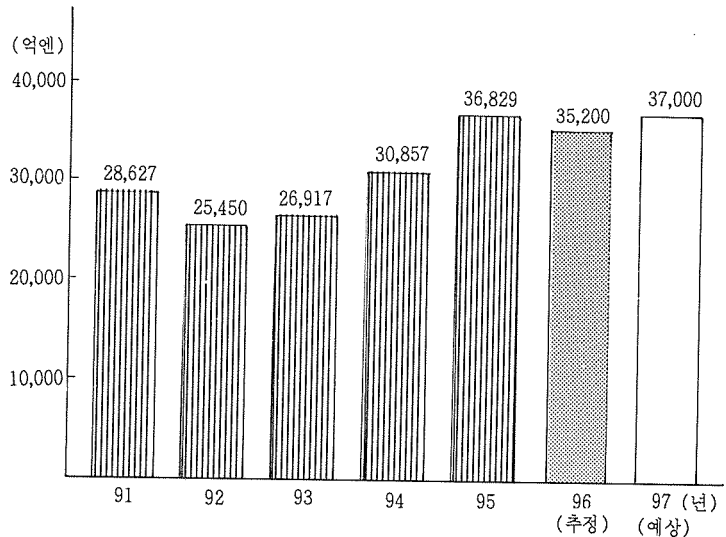
반도체 집적회로는 4/16M비트 DRAM의 대폭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해 '96년의 국내생산액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3조 5,200억엔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마이콤과 ASIC는 PC주변기기, 이동체통신 기기용 등에 견조한 추이가 보이지만, DRAM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96년 여름 이후에는 주요각사가 생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97년에는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멈춘다고 해도 전년대비 베이스로는 상반기까지 그 영향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견조한 비DRAM과 후반부터의 DRAM증산이 기여해도 '97년 전체로는 전년대비 5% 증가한 3조 7천억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PC와 주변기기, 이동체통신기기, 네트워크기기, 게임기기 등 전자기기의 수요확대는 금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PC에서는 윈도우즈 NT 4.0%의 보급과 멀티미디어 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MPU의 등장과 네트워크 단말의 출현 등에 의해, 메인메모리 탑재용량의 확대, 화상처리, 통신·네트워크기능의 강화에 대한 반도체 소비의 증가 등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집적회로의 국내생산고 추이(자료 = 통산통계)



이에 더하여, 인터넷/인트라넷, 디지털 위성방송 등의 인프라정비에 따라 고집적, 고기능 LSI의 수요확대가 계속될 것이다.

②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오프트 다이오드 등의 반도체 소자는 미미한 감소를 추이하나, '97년 이후에는 MOS FET(전체효과형 트랜지스터)와 DVD 등 광정보 기록장치용의 반도체 레이저에 기대를 걸고 있어, '97년의 생산액은 5% 증가한 9,080억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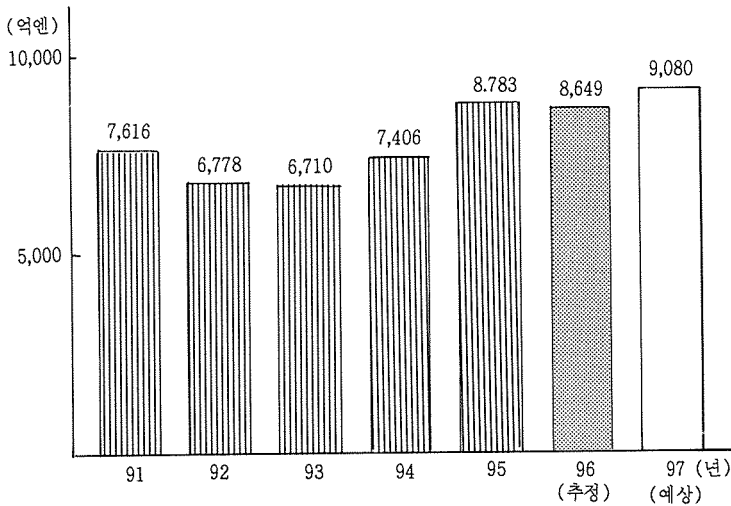
반도체소자는 직접회로만큼 기술혁신에 의한 큰 변화는 없으나, 칩의 소형화 및 새로운 패키지 기술 등 세트의 소형·경량·박형화 요구에 부응해 착실한 진보를 거두고 있으며, 또 노트형 PC와

휴대전화 등 배터리 구동의 휴대기기 시장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랜지스터에서는 MOS화애의 진행이 더욱 가속화하여, 저온저항화 등 저소비전력화에 대한 개발경쟁은 격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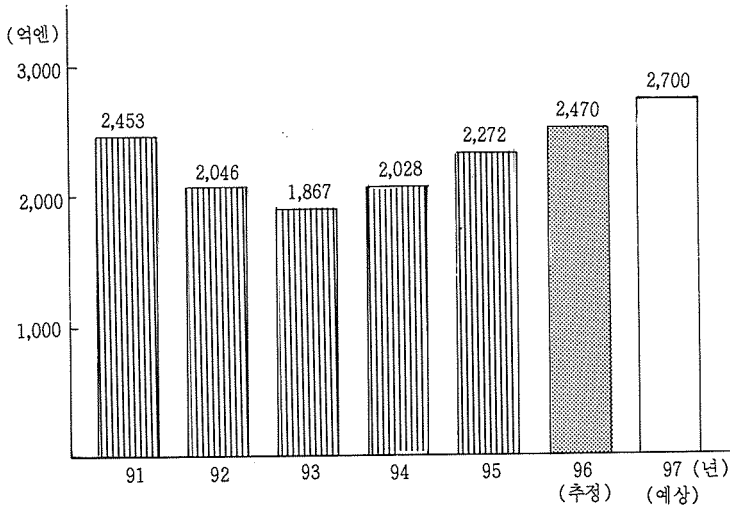
오프트 디바이스는 포트카프라 등의 수요가 확대하며, 휴대전화용 등의 칩 LED도 양적인 확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LED는 고휘도화와 청색 LED의 양산화에 의해 풀칼라 디스플레이 등애의 용도가 확대하며, 반도체레이저도 CD-ROM의 광 피크업용에 더하여 DVD용이 새로이 선보이고 광통신용 반도체레이저의 수요도 통신네트워크의 인프라정비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소자의 국내생산추이(자료 = 통산통계)



혼성집적회로의 국내생산추이(자료 = 통산통계)



③ 혼성집적회로

혼성집적회로(하이브리드 IC)는 이동체통신기기 등 고주파, 고밀도 실장분야에서의 강세를 살려 2자리 전후의 신장을 보이고 있다.

'97년에도 이동체통신기기용은 강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디지털 위성방송의 본격화에 따른 초고주파분야와 고속·고밀도 실장요구가 강한 서브 노트형 PC용 MCM(멀티 칩 모듈) 등의

수요증가가 기대되어 하이브리드 IC의 생산액은 10%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이브리드 IC는 모노리크 IC로는 실장할 수 없는 고주파와 고속·고밀도 실장, 대전력분야에 침투해 있으며, 현재는 회로의 주요 기능 블록을 원패케이지로 정리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재문기술, 회로설계기술, 배어칩을 포함한 고밀도 실장기술, 미소접합기술, 패키징 기술과 종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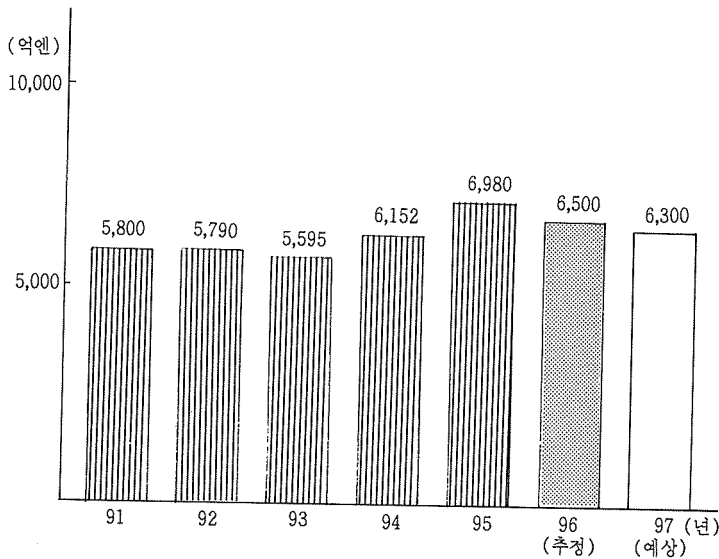
'97년에도 이동체 통신기기의 양적확대에 더하여, 노트/서브노트형 PC에 있어서의 성능경쟁으로 인해 펜티엄 등 고성능 MPU와 주변 LSI, 메모리 등을 원패케이지로 실장한 MCM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프린트카판에의 실장에서는 배선저항에 의한 지연 등이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성능 개선에 있어 혼성집적회로의 기여가 기대된다.

④ 브라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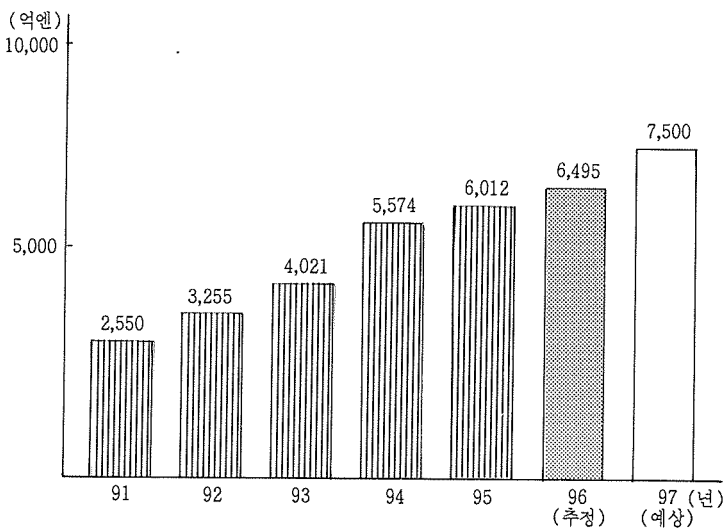
브라운관(CRT)의 국내생산은 PC/컴퓨터의 모니터용이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지만, 칼라TV용은 해외로의 생산이전 등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어, '96년 전체로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6,500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97년에도 모니터용의 대화면화 비율이 높아져 국내 CRT메이커에의 의존도는 강해질 전망이다.

브라운관의 국내생산고 추이(자료 : 통산성통계)



액정디바이스의 국내생산고 추이(자료 : 통산성통계)



만, 칼라TV용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생산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환경은 어

려워, 3% 정도 전년을 하회한 6,300억엔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CRT는 PC시장의 급속한 확대

에 의한 모니터 수요의 증대, 와이드 TV의 본격적인 보급 등으로 국내생산이 '94, '95년에 증가를 보였으나, '96년이 되자 고성장을 계속해 온 모니터용도 데스크탑형 PC의 생산조정과 대만, 한국메이커의 약진 등으로 인해 신장이 둔화되었다.

'96년 후반에는 17/20인치 등 대화면으로의 이행도 있어 국내 CRT메이커의 수주가 증가하였지만 1자리 증가에 그쳤고, 칼라TV용은 와이드 TV 등 대형화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CRT의 해외생산화가 정착되어 있어 국내생산은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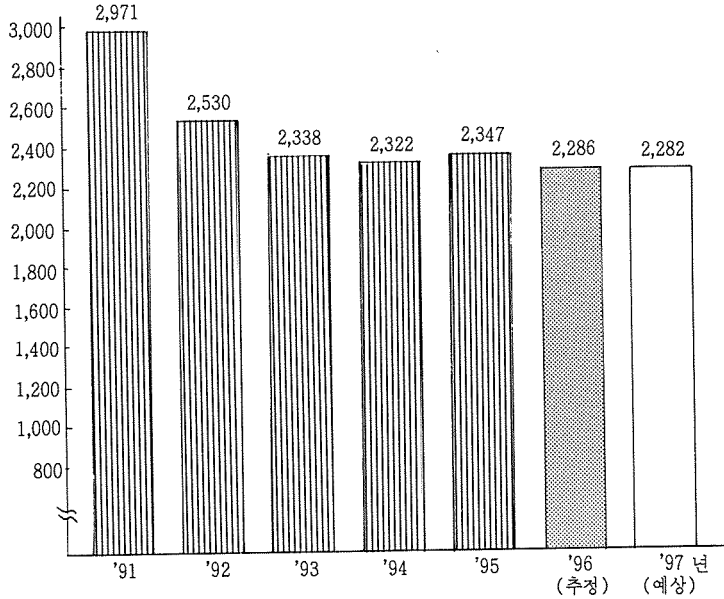
한편, PC모니터용으로써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모니터가 등장해 성스페이스, 성소비전력을 무기로 시스템 판매를 행하는 PC메이커도 증가하고 있어, 가격면에서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CRT시장의 일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⑤ 액정 디바이스

액정 디바이스는 노트형 PC의 시장확대에 따라 각사 모두 풀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나, 12.1인치를 중심으로 대화면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대수가 감소해 '96년의 생산액은 8% 증가한 6,495억엔을 나타내고 있다.

'97년에도 노트형 PC를 중심으로 수요는 높은 수준에 있지만, 공급면에 있어서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데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금년 가

〈스위치의 생산액 추이〉



(자료 : 통산성 통계)

올까지는 TFT액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급균형의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97년의 생산액은 15% 증가한 7,500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액정디바이스의 국내생산은 노트형 PC에의 TFT/STN 칼라 액정의 탑재가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금년에는 노트형 PC에서 13.3인치급의 탑재가 시작되고 있어 PC 모니터용에 13~15인치급의 대형액정디스플레이가 붐을 이트킬 것으로 보이며, 중·소형 분야에서도 카네비게이션, 휴대정보단말, 디지털 스틸 카메라 등에서 신규 시장이 확대가 기대된다.

(3) 접속/변환부품

① 스위치

스위치 품목별로는, 정보·통신 기기의 생산증가를 반영하는 형태로 '95년에 2자리 증가(약 17% 증가)를 보인 조작스위치와 검출 스위치가 '96년에는 격감하여 '97년에도 거의 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생산품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제품분야에 걸쳐 종래보다 더욱 고품질, 고신뢰성, 고기능이 요구되는 Customer성이 강한 것, 혹은 소류트로 단납기가 요구되는 것으로 서서히 집중되고 있다.

단품스위치에서는 조작계보다도

기기내부에 들어가는 검출이나 모드교체 등 센서계 스위치의 신제품개발에 각사 모두 주력하고 있다.

세트의 다기능화, 복합화의 흐름속에서 최근 각사가 제품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멀티웨어 스위치”와 오퍼레이션 패널(오페라네)의 각종 입출력 디바이스 사업으로, 멀티웨어(스티크) 스위치는 AV에서부터 카네비게이션용, 멀티미디어 관련기기 대응용에서 와이어레스화를 포함해 금년에는 활발한 제품개발이 행해질 것 같다.

② 코넥터

코넥터는 기기내의 실장, 기기 간접속(I/O)용의 부품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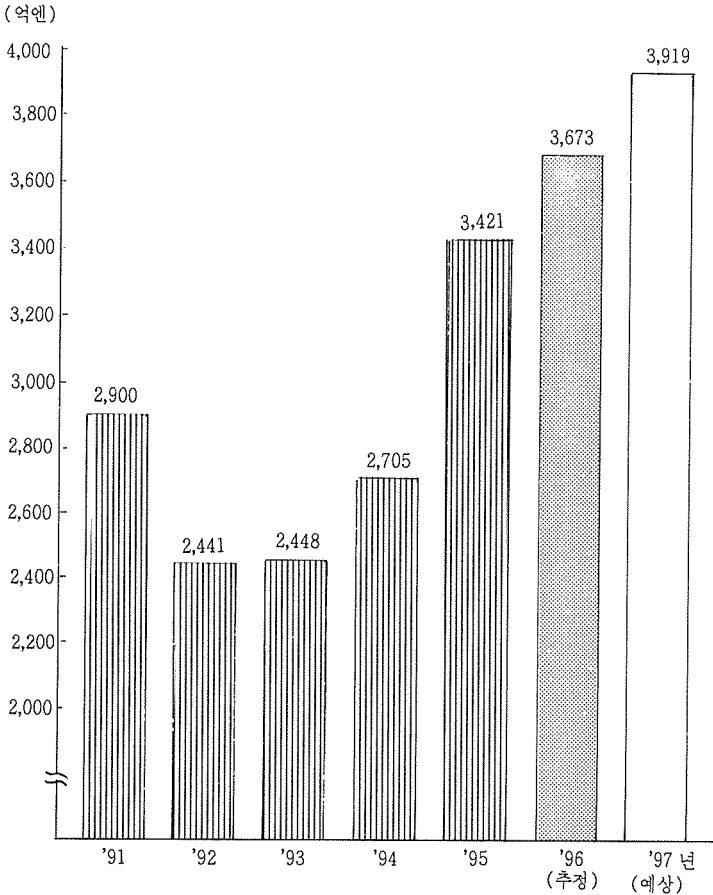
해외생산이전의 진전에 따라 일반 전자부품의 국내생산이 전반적으로 전년실적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코넥터만은 예외적인 움직임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PC, 주변기기에 더하여 PHS·휴대전화 등 이동체통신기기의 생산이 크게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고, 수출도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있다.

이에 더하여 AV기기의 동남아시아, 멕시코로의 생산이전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생산비율이 15~20% 정도로 낮다고 하는 점도 포인트이다.

'95년에 전년대비 27% 증가라고 하는 생산액은 급증을 보인 것도 있어 '96년 년초에 업계에서는

코넥터의생산액추이



(자료 : 통산성통계)

3,475억엔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결과는 3,700억엔 가까이까지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큰 신장은 바랄 수 없으나, 6~7%대의 안정된 신장을 보여 3,900억엔 가까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로는 세트의 다운사이징화에 대응한 저배(박형) 헵핏치화, 고속전송화, 디지털화를 의식

한 제품의 개발이 눈부신데, 실장용에 있어 PHS·휴대전화와 노트북용으로는 0.5mm 핏치품이, 기관대 기관용과 PPC/FFC용에서는 STAT 대응품의 채용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년에는 멀티미디어의 진전에 따라 콤팩트 후랏슈(CF) 대응의 카드용 코넥터의 제품화가 주목받을 것 같다.

③ 자기헤드

자기헤드의 수요는 '95년 여름 이후 AV기기의 생산조정이 특히 중국·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점도 있어 전반적으로 저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일본의 자기헤드 생산은 '91년을 피크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96년의 생산액은 '91년의 54%에 머물러 절반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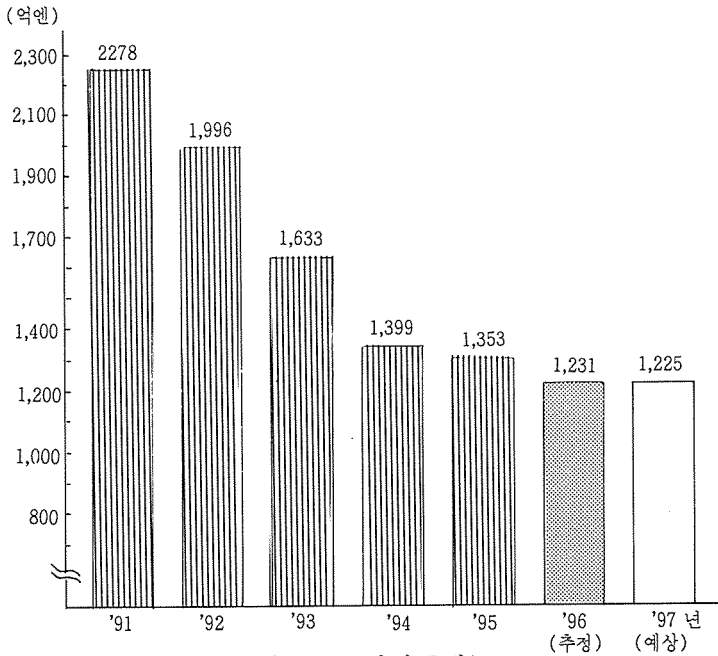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규모가 큰 AV기기용이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라디오카세트, 헤드폰 오디오플레이어)에 더하여 VTR용에 있어서도 급피치로 동남아시아에 생산이 이전되고 있는 것이 최대의 요인으로 오디오용에 대해서는 일부의 하이파이용과 파이롯라인용을 제외한 범용품은 각 헤드메이커가 모두 대부분을 중국과 ASEAN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VTR용도 해외생산비중의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는 하이비전 VTR용, DVD용, DVC용에 금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PC·주변기기용에서는 FDD용의 회복과 함께 HDD용 헤드의 동향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각 헤드메이커 모두 MR(자기저항)헤드의 양산체제를 일제히 강화하여 드라이브 메이커의 생산확대에 대응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금년에는 대폭적인 수요증가를 예상하는 견해도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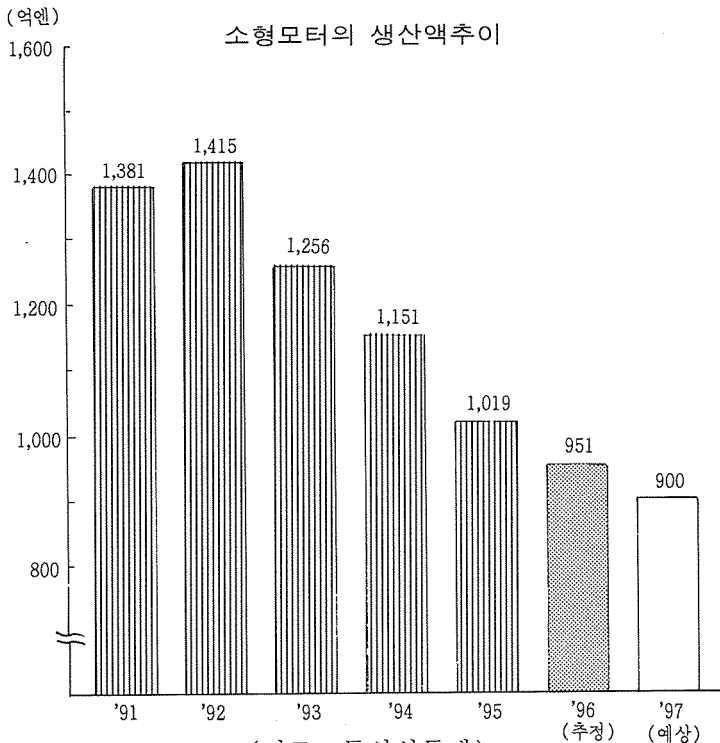
스탠다드 타입인 「SP모드」에

자기헤드의 생산액 추이



(자료 : 통산성 통계)

소형모터의 생산액 추이



(자료 : 통산성 통계)

이어 「LP모드」 타입의 본격화가 금년의 하이라이트이다.

④ 소형모터

소형모터는 전자부품중에서 가장 해외생산비율이 높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92년에 4,150억엔을 기록한 이후 국내생산은 급격히 하락하여 '96년에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962억엔으로 연간 생산량이 1천 억엔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자공업회 전망에서는 6.5% 감소한 900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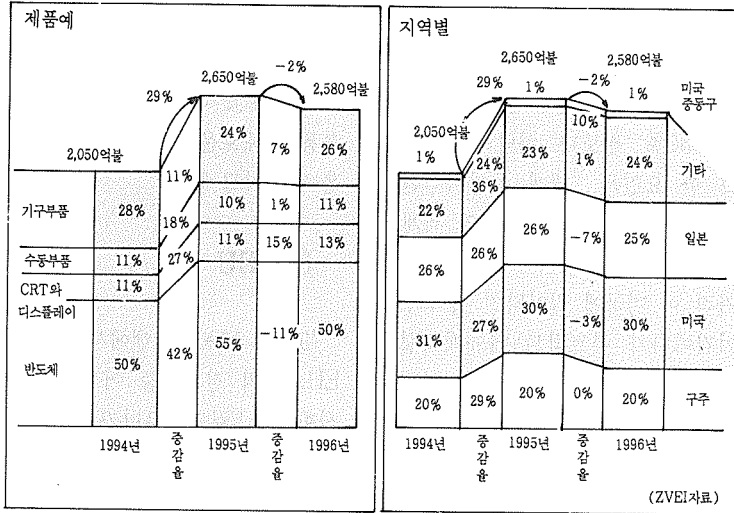
작년 전반에는 AV기기의 생산조정이 있었고 총체적으로 해외생산량이 착실히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해외에서의 생산계획을 갖고 있는 메이커가 많다.

오디오용에서는 MD플레이어용이 헤드폰 오디오용과 카오디오용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 CD용도 카 스테레오용 외에 CD-ROM 드라이브용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해 큰 수요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비디오용에서는 작년에 이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DVC)와 디지털 비디오 디스플레이어(DVD)의 생산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정보기기용에서는 CD-ROM 드라이브용, HDD용의 스피들 모터, 팬일체형 냉각용 모터가 금년에도 더욱 신장될 것이 틀림없다.

또 PHS, 휴대전화, 페이지용의 전동모터의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중국·ASEAN 지역에 있어

세계의전자부품시장



(자료 : 통산성 통계)

동시에 신규수요의 발골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전자부품업계는 '90년대 초반의 불황을 탈피해 '94, '95년 모두 2자리대의 성장을 기록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의 3대기둥은 휴대전화 등의 통신관련기기, PC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기,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이나, '96년에는 통신, PC관련의 수요가 둔화하여 당초 예상을 뒤엎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 같다.

'96년의 미국 PC출하대수는 업계관계자의 예상에 의하면,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으로 신장율은 둔화하였지만, 수요는 견제함을 보여주고 있다.

'96년 전반에는 '95년 연말상품전에서의 PC의 공급과잉에 의한 재고조정이 오래 계속되어 부품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5년부터 2000년까지 PC시장의 연평균 성장율은 13~15%로 보여져 PC수요는 계속하여 전자부품시장의 성장에 있어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6년의 현저한 경향으로서는 PC메이커의 표면 실장기판 어셈블리 등을 행하는 콘트랙트 하청업자의 실적악화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PC수요의 신장율 둔화가 그 요인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최근에는 중국에의 진출까지 눈에 띄고 있어 미국전자 부품업체에의 영향도 우려되기 시작하고 있다.

통신관련은 휴대전화 대형메이

서의 대응 모터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신장될 가능성이 높다.

II. 세계전자부품 시장전망

(1) 개황

미국·EU를 포함한 해외의 부품시장은 작년 AV기기와 일부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조정도 있어 전체적으로는 힘든 1년이었다.

세트메이커의 격렬한 판매경쟁은 상품의 저가격하를 초래해 부품업체에 코스트다운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도 AV기기, PC주변기기, 산업기기 나아가 자동차 전장부품 각각의 수요분야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다.

(2) 미국

미국전자 부품업체는 힘든 새해를 맞이하였다.

'95년까지의 호황에서 일전하여, '96년에는 휴대전화와 PC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용의 수요가 금년에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가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트메이커의 재고조정이 일단락 됨에 따라 '97년 전반에는 다시 상승기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일본계 부품메이커는 시장의 투입시간 단축 등 서비스의 향상과 북미 현지생산의 증강, R&D 체제의 확립을 서둘러 고객의 Needs를 종합적으로 서포트함과

커의 재조정정에 시간이 걸리고 부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압력도 강해 업계에서는 '96년의 출하액이 전년대비 14~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97년에는 기대를 모았던 PCS 등 차세대 무선 통신서비스의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신장율도 둔화하여, 업계에서는 10.7%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아날리스트인 하셀 쇼스텍씨는 '96년의 미국 휴대전화 출하 대수에 대해 전년대비 15% 증가하며, '97년에는 동 10~15% 증가한 1,600만~1,700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성장율은 점차 둔화해 '98년에는 신규가입건수의 감소로 인해 동 10~15%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98년에는 최근 수년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저가격화 경향에 제동이 걸려 신규가입자가 많이 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2000년에는 교체수요로 인해 다시 상승기류를 탈 전망이다.

부품메이커 각사는 PCS로 대표되는 신서비스의 실시시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세트메이커와의 연계를 강화해 조기시장개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전장화율 향상의 상승효과로 부품수요도 늘고 있다. 무라다 일렉트로닉스는 '97년의 시장전망으로써 전년대비 8%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롬도 「전

장화율은 매년 10~20%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96년에는 3대시장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달성하였지만, 전자 부품가격의 급락은 계속되었다. 특히 저항기, 세라믹 콘덴서 등은 20~30% 정도나 하락하였는데, 그 한 요인은 “세계 동일가격현상”의 확대로 세트메이커의 세계 전개와 함께 부품의 「동남아시아 가격」이 미국에 밀어닥친 것이다. 여기에다가 콘트랙트·매뉴팩처링의 동남아시아 전개로 인해 가격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진 것이다.

미국 전자부품판매의 약 3할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96년에는 반품, 캔슬 등으로 인해 대량의 재고를 안고 있는데, 세트메이커의 가격에 대한 요구는 점차 심해져 각사의 증산효과에 의한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현저한 저가격화 현상의 발생을 추진시키고 있다.

저가격화는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고 하는 견해가 많으나, 메이커에 있어 '97년은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계속해 서급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전자부품메이커는 부품의 소형·경량·박형화 Needs에의 대응은 물론 리드타임의 단축, 납입형태의 유연성 등 서비스의 다양화로 시장확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북미 현지의 R&D활동도 본격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히로세전기는 미국자회사와 본사 개발부문의 연계를 강화해 미국시장용 제품의 조기개발과 제

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보급을 배경으로 모뎀, LAN 등 통신기기와 자동차관련 기기용 부품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는 무라다 일렉트로닉스(飯石武史사장)는, 장기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용도의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3) EU

'96년 11월 뮌헨에서 개최된 EU최대의 전자부품 어셈블리 전시회인 「일렉트로니카 '96」에서 독일의 전기전자공업중앙회(ZV-EI)전자부품 전문부회의 울트 뮤카 회장은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적자에서 벗어나려던 희망이 사라졌다.

하지만, '96년의 능동부품시장 규모는 2년전인 '94년보다 2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EU전자부품시장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수동부품시장에서 실정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이익을 '96년에 제로로 만들어 버렸다」고 ZEVI의 레이나 심슨 수동부품위원회 회장은 말하면서, 콘덴서, 저항기 코일부품 등이 받은 타격은 능동부품보다 크다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독일의 부품시장에서는 능동부품이 59%를 점하고 있는데, '96년의 능동부품 시장규모는 127억 마르크(약 9,270억엔)으로, 디스크리트 반도체의 가격이 2.1% 하락하면, IC시장에서는 5.5%의 마

이너스가 되어 피해는 크다.

TV의 브라운관(CRT)과 모니터는 능동부품중의 약 10%를 점하고 있는데 브라운관의 가격은 '96년에는 19% 하락해 6억마르크를 기록하였으며, 또 노동코스트의 상승으로 부품생산은 동구지역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편, LCD의 신장은 현저한데, '96년의 부품시장 중에서 최대의 신장율을 보여, 약 29% 증가한 3억 7,200만 마르크를 기록하였다.

통신분야와 자동차관련부품의 수요는 6~8%의 신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IC는 디스크리크 부품보다도 회복이 빠르지만, CRT는 독일시장에서는 2자리의 하락을 보이나 애플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능동부품의 Top은 LCD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시장에서 금액베이스의 구성비는 3.5%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수동부품시장은 '96년 예측에서는 전체적으로 28억 3000만 마르크로 전년대비 9.6% 감소하여 '9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나, '95년의 31억 3,000만 마르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3.1% 이외는 각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동부품중 가전용은 침체가 심각해 전년대비 19.1% 감소하였으며, '97년에도 침체가 계속되어 18%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또, 자동차용 수동부품도 '97년

에는 1%에 못미치는 신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시장에서는 과거 10년간 콘텐츠의 시장규모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표면실장용 콘텐츠의 수요는 많지만, 리드타입의 세라믹 콘텐츠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인덕터 부품도 마찬가지로, 저항기는 장기적으로 착실히 신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동부품시장중에서 콘텐츠는 3%, 저항기는 20%의 쉐어를 점하고 있다.

기구부품은 반도체가격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장하고 있는데, 독일시장은 '94년에 52억 2,400만 마르크(전년대비 11% 증가), '96년에는 60억 2,800만 마르크로 4.8%의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97년에도 4.1% 증가한 62억마르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주인 자동차관련 및 통신분야와 비교해 가전용 기구부품은 하강경향에 있어 '95년의 2억 600만마르크에서 '96년에는 2억 마르크로 6.5% 감소하였으며 '97년에는 '96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6년의 코넥터는 컴퓨터용이 6% 증가하는 등 자동차 수요로 4.8% 증가해 착실히 신장해 프린트 기판을 누르고 기구부품의 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치는 수량면에서는 최소이지만, 자동차 수요로 2.4% 신장하고 있다.

(4) 동남아시아

일본계 부품메이커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부품수요는 이제 기업업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계 세트메이커는 물론, 구미계 세트메일로 중국과 ASEAN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해, 세계소비마켓에 대한 일대 공급거점으로써의 위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95년 여름경부터 현재화한 AV(음향 영상)기기의 생산조정 이 '96년 중반까지 계속되어 세트메이커에 대응하는 형태로 생산체제를 강화해 온 부품메이커에 있어서는 리로운 1년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부품각사는 예전의 대만, 한국 등의 NIES지역에서 ASEAN지역 및 중국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재 이전하고 또 같은 ASEAN 지역내에서도 재배치하는 형태로 이전을 행한 것이 '96년도 부품생산의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들면 태국, 말레이지아로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혹은 중국으로 생산품목의 이관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이전, 재배치에 의해 말레이지아는 AV기기, 필리핀과 태국은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중국은 AV, 정보·통신을 불문하고 범용품 및 저가격품의 양산거점으로써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것이나 세트메이커의 생산이전과 연동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작년 여름 일본전자기계공업회(EZAJ)가 실시한 '96동남아시아 전자공

업 동향조사」의 보고서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산거점의 재배치, 재편성은 저가격경쟁의 격화, 코스트 압력, GSP(특혜관세),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EU 블록화에 의한 “메이드 인 마켓”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R&D기능의 이전 및 현지부품메이커에 대한 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생산거점의 수정움직임은 금년에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 틀림없다.

태국에 있어서의 전자부품의 주요는 칼라 TV용이 주체였던 종래에 비해 최근에는 HDD를 비롯한 PC주변단말분야의 시장이 확대하고 있는데, 태국 국내에서의 부품생산이 적은 점도 있어 싱가포르 등

아시아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에 진출한 일본계 부품메이커에서는 태국 국내 소비에의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표면화하고 있다.

PC주변단말에 대하여 금후 부품수요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전장부품관련으로 세계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태국을 전략거점으로 하여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품시장의 확대를 예상하는 일본계 부품메이커는 많다.

필리핀시장은 금년의 동향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 일본의 대형 HDD메이커의 생산이전은 관련반도체, 헤드, 모터, 스위치, 코넥터 등의 현지에 있어서의 마케팅 및 생산체제의 강화에 상당한 인

팩트를 주고 있어 금년에는 중국과 함께 부품생산량이 대폭으로 신장될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금년 7월 홍콩반환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부품시장은 계속 확대기조에 있다. 최근 수년간 AV기기를 중심으로 한 전자기기의 생산대수 증대, 통신을 비롯한 인프라정비의 진전 등에 대응한 중국 국내 소비의 증가, 나아가서는 수출생산 거점으로써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중국진출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의 정세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기운이 강해져 다소 제동을 걸고 있는 감도 있으나, 중국 국내의 부품수요는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확대기조를 지속할 것은 틀림없다.

일 본
〈전파신문〉

